

그림으로 읽어낸 '과학사의 그때 그 시절'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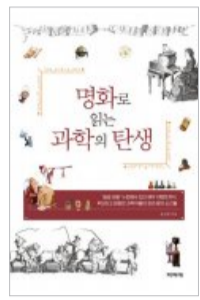
명화로 읽는 과학의 탄생

윤금현 지음

역사화가 어니스트 보드가 그린 그림 가운데 영국의 사 에드워드 제너가 우두 접종을 하는 장면이 있다. 1773년 고향 마을에 개업을 한 제너는 천연두에 관심이 있었다. 이 마을에는 우유 짜는 여자가 소의 천연두(우두)를 앓은 뒤로 인간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다.

제너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다. 그는 1796년 최초의 우두를 마을의 소년에게 접종한다. 제너는 우두에 걸린 젖 짜는 여인의 손에 난 수포에서 고름을 긁어 접종용 침에 발랐다. 그리고는 제임스 핏스라는 8살 소년의 팔에 찔러 우두를 감염시킨다. 그런 다음 제너는 핏스에게 여러 불질을 주사했으나, 다행히 어떤 감염 징후도 나타나지 않는다. 우두법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무모하고 엉뚱한 도전이 의외로 놀라운 발견과 발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같은 역사적인 순간을 그림으로 읽어낸다면 얼마나 흥미로울까? '과학사의 그때 그 시



절'을 그림으로 읽어낸 이색적인 책이 발견됐다. 책은 주로 과학자나 의학자 등이 행했던 드라마틱한 장면을 다룬 그림들이 다수 등장한다.

수학과 과학 관련 대중서를 발간하고 번역작업을 해온 윤금현 번역가가 펴낸 '명화로 읽는 과학의 탄생'은 다소 무모하고 엉뚱한 과학자의 열정을 모티브로 한다. 저자는 지금까지 '셜록 홈즈 추리 파일', '마틴 가드너 수학자의 노트'와 같은 흥미로운 책을 번역했다.

책에는 공개적인 해부 이벤트 관련 그림부터 빛을 일곱 조각으로 나누었던 뉴턴의 실험 관련 그림, 빅토리아 여왕 무릎받침에 얽힌 마취 관련 이야기까지 다양하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1년에 한 차례 시신 해부가 허용됐다. 사형수가 대상이었는데 이를 보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내야 했다. 해부 현장을 보는 것은 하나의 이벤트로 인식됐다. 당시 26세 젊은이에게 해부 이벤트 현장을 그려달라는 주문이 들어왔다. 그 청년은 바로 빛의 화가 렘브란트 반 레인. 역사적인 렘브란트의 걸작 '니콜라스 윌프 박사의 해부학 수업'은 그렇게 탄생했다.

니콜라스 윌프는 외과의사이자 암스테르담 시장이었다. 복장을 갖추고 의뢰용 집계를 켜 그 죽은 자의 완팔 근육을 들어올린다. 시신 옆 사람들은 신기한 표정으로 인체를 바라보지만 주위 사람들은 화가를 넘기지 바라볼 뿐이다.

저자에 따르면 이 그림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그린 그림은 아니다. 렘브란트가 상상으로 그린 것으로, 돈을

지불한 사람들은 그림에 등장하기를 원했던 모양이다. 그림 속 사람들은 실존 인물들이 아니다.

무지개를 일곱 빛깔로 분류하고 햇빛의 진짜 색을 밝힌 이는 아이작 뉴턴이다. 그 뉴턴의 프리즘 실험을 그린 목판화가 있다. 현대 뉴턴은 17세기 사람이지만 판화는 19세기에 제작됐다. 조각가는 상상으로 뉴턴과 그의 실험을 묘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판화 속 그림은 이렇다. 뉴턴이 프리즘을 통해 문틈으로 들어오는 태양광을 투과시키자 하얀 천이 썩어진 보드 위로 빛줄기가 쏟아진다. 빨주노초파남보, 모두 일곱 빛깔의 색이다. 이 무지개를 다시 프리즘에 투과시키면 하나의 빛, 흰색이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흰색은 수천 가지 색깔이 혼합된 색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이밖에 책에는 금을 찾던 연금술사들이 금 대신에 얻은 것은 인이었다는 것과, 수은 기동으로 진공의 존재를 증명한 파스칼, 번개의 정체를 밝힌 벤저민 프랭클린과 피뢰침의 원리 등 과학사에 빛나는 '그때 그 시절'을 그림으로 표현한 순간들이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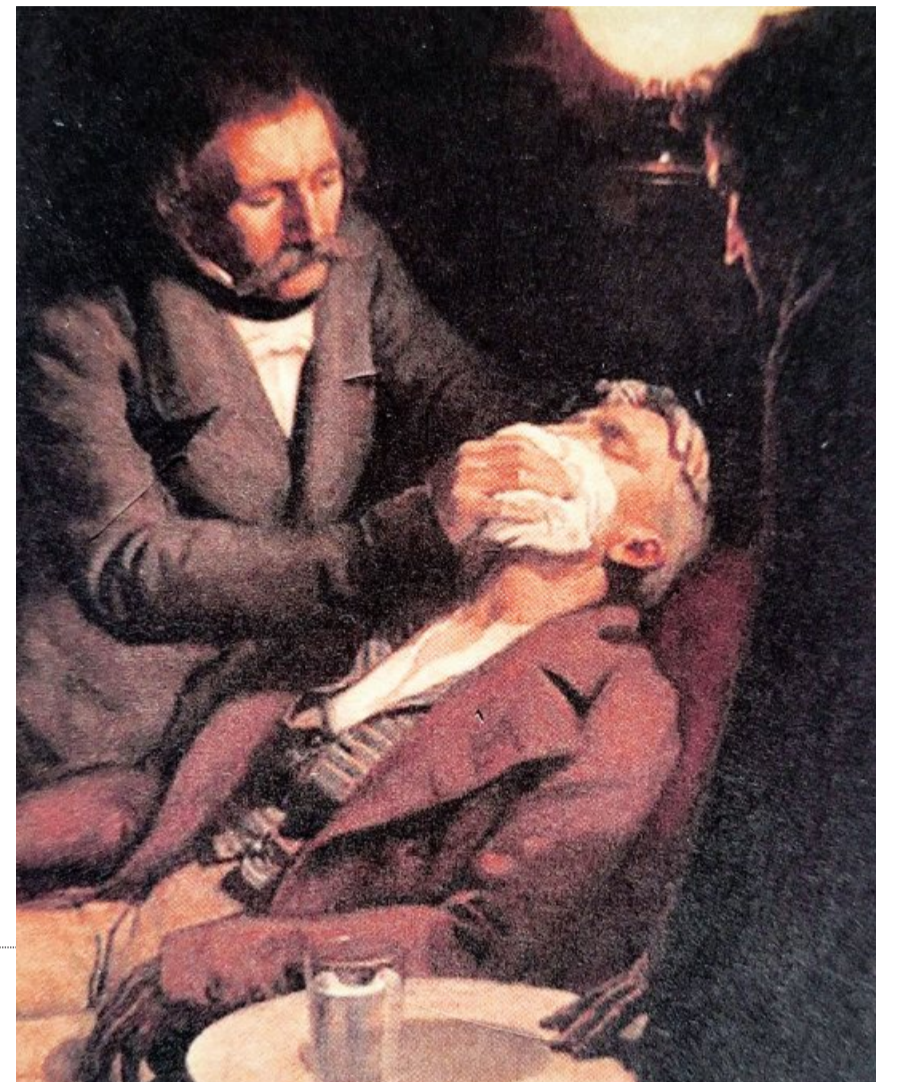
저자는 "책에 나오는 과학 이야기들은 비록 오래전에 행해졌던 것이지만 지금도 따라하면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것이 과학입니다"라며 "광원경으로 목성을 보면 갈릴레이가 찾아냈던 위성 4개를 나도 똑같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파피에-1만9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846년 윌리엄 모튼이 중앙 제거 수술에서 최초로 에테르를 마취제로 사용하는 것을 시연하는 장면

〈파피에 제공〉



화염사 잃어버린 200년

무진 지음

수많은 해석이 경쟁하는 역사라는 전제하에 늘 봄비는 곳도 있지만, 고종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빈 곳도 많다. 그 중에서도 사찰의 역사는 특히 그러하다. 절에 세워져 있는 유물 앞 안내판에는 늘 "불에 타서 소실되고 증진했다"는 문구가 빠지지 않는다. 잦은 외침으로 인해 늘 공격의 대상이 됐던 사찰은 잿더미에 잿더미를 거듭하는 오욕의 세월 속에서 본연의 기록을 잃어버렸고, 수많은 사실들이 낡은 과거 속에 묻혀버렸다. 훨씬 후대에 조각보를 기우듯 만들어진 역사는 애초의 진실과 멀어져서 사찰의 기원을 올려 잡는다든지, 유명 스님과의 연계점을 만든다든지 하는 세속적 욕망에 침윤되기 일쑤였다.

최근 이런 분위기에 정면일침을 쫓는 듯한 학문적 시도가 나왔다. 화염사와 오랜 인연을 맺은 저자 무진 스님이 박사논문으로 화염사의 역사를 고증해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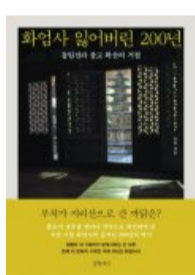
무진 스님은 2003년 육천사에서 오명스님 은사로 출가했으며 2006년 직지사서 영허스님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2011년 통도사에서 고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화염사 성보박물관 부관장과 문화국장을 역임했으며 서양철학, 한국사상사-유교경전, 불교학, 문화재학 등을 전공했다.

불교가 경주를 벗어나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된 것엔 거점 사찰 화염사의 역사가 존재한다. 철저한 사료 분석으로 화염사의 초기 역사 200년을 밝혀낸 작품이다.

화염사 주지 덕문 스님은 "이 책은 화염사의 역사 뿐 아니라 한국 불교의 흥망성쇠를 알려주고 있다며 위대한 화염사 위대한 한국 불교의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다"고 평했다.

〈글항아리-2만5000원〉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슈퍼카 타고 우주 한바퀴

이광식 글 김혜영 그림

우주공간에서 푸른 지구를 배경으로 빨간 스포츠카를 모는 우주인을 상상해보라. 지난 2018년 2월, SF영화 속 한 장면같은 일이 실제로 이뤄졌다. 세계 제일의 갑부인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 최고경영자이자 우주개발회사 '스페이스 X'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몰던 스포츠카가 우주복을 입은 마네킹 '스타맨'을 태워 화성으로 쏘아 올린 것이다.

저자는 '스타맨'처럼 별빛종 2학년 에별양과 함께 상상의 슈퍼카를 타고 우주여행을 떠난다. 태양에서 출발해 화성과 토성, 천왕성 등 여러 행성을 지나 태양계 끝에 이른다. 또한 138억 년 전 발생한 '빅뱅' (대폭발)과 우주의 팽창 등 우주역사의 시작과 끝을 살핀다. 독자들은 '장백한 푸른 점'에 불과한 지구에 발붙이고 있지만 저자의 설명을 들으며 시공간을 넘나드는 우주여행을 만끽할 수 있다.

강화도 퇴모산 시골집 옥상에 '원두막 천문대'를 지어놓고 별을 보는 저자는 힘든 시기에 접어든 10대 전반의 '로틴' (Lowteen)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이 책을 썼다. 성적과 외모 등 온갖 스트레스로 인한 '중2병'을 겪는 10대들에게 우주를 통해 '더 큰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저자는 "중2병 제대로 온 사춘기들을 위한 신박한 우주여행"이라는 부제를 단 이 책에서 "우주를 가슴과 머리에 담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분명 다를 것"이라며 "우주를 머리와 가슴에 담으라"고 말한다. 특히 출판 편집자 출신으로 시골에서 농사짓고 쓰는 김혜영 작가의 삽화가 우주여행의 이해를 돕는다. 작가는 저자의 제안을 여러 차례 고사하다 "인생은 어드벤처"라는 한마디에 설득돼 펜과 수채물감으로 삽화를 그리게 됐다고 한다.



〈틀레니우-1만5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원행 스님의 당부

원행 지음, 자연 정리

지난 2018년 9월, 탈종교 현상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불교계 역시 혼란을 겪고 있을 때, 한국불교 대표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원행 스님이 당선됐다.

당시 '우리 종단과 불교계의 엄중한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선 소감을 전했던 원행 스님은 '우공이산'의 고사처럼 원력(願力)을 가지고 노력하는 이는 그 어떤 어려움도 막아낼 수 있다는 믿음 아래 '백만원력결집'으로 대표되는 중흥 불사를 흔들림 없이 한발 한발 추진해 나갔다.

도사 '원행 스님의 당부'는 제16대 중앙종회의장을 역임하고 중앙승가대학총장을 거쳐 지난 2018년부터 총무원장으로 4년을 섬겼던 원행스님이 임기 말, 우리 사회와 사부대장을 향해 전하는 당부의 이야기다.

스님은 갈등과 논쟁의 현 사회 속에서 이분법과 차별을 극복하고 이웃을 섬기며, 나아가 대화합의 장을 열어가야 한다고 직설한다.

스님이 이야기하는 '보살행'의 핵심은 '바른 원력'에 있다. 이를 통한 신행과 수행은 자신의 안심은 물론 대중의 안락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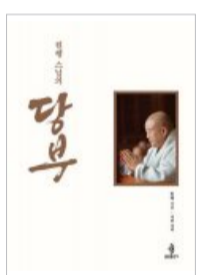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인연법의 이치라는 게 저자의 이야기다.

전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추천사를 통해 "한국불교의 현주소와 대사회적 역할이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는, 불자라면 누구나 읽어볼 만한 의미 깊은 책"이라고 평했다.

불자로서의 초심을 다시금 일깨우는 스님의 당부는 대중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종교인 동시에 아직 남아 있는 속세를 함께 풀어보자는 희망과 격려의 말이기도 하다. 스님이 펼치는 생생한 자비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다.

〈불광출판사-2만원〉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2년 9월호

2022년 8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도시벽화 회색도시에 색을 칠하다

- 무뚝뚝한 도시 깨우는 화사한 숨결
- 광주의 대표 벽화거리가 담은 이야기들
- 개성있는 그림, 행복한 이야기
- 사랑받는 '핫 플레이스' 벽화



美路 味路
출지어 앉은 섬들의 합창
남해안의 미항, 여수

오동도, 금오도 비렁길, 여수 밤바다, 해상 케이볼카
- 방풍인의 변신 '방풍 헬기', 초콜릿, 알싸한 맛과 영양 '돌산갯김치'
- 자작나무숲 힐링스팟 '카메 모이반'

연중기획-광주 한바퀴
GWANGJU TOUR

#9월 광주여행
#무등산 아트밸리 #의재미술관
#전통문화관 #무등현대미술관 #드림미술관
#국문미술관



해외문화기행 ⑧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세계 미술애호가
발길 붙잡는 암스테르담
뮤지엄 광장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 ③
고운 최치원 배향
정읍 무성서원



에ditorial
『사진가와 열하일기』 펴낸 다큐 사진가
박하선
"역사가 놓친 진실을 찾아 기록합니다"

화제의 전시 - 광주시립미술관
'영원을 빛은, 권진규'전
'이상'과 '영원'을 추구한
구도자적 예술세계를 만나다

문화를 품은 건축물 ④
건축이 예술을 만나 빛나는
서울 사비나미술관
황영성 화백의 아메리카 그림 여행 ②
대자연의 숨결과 마야,
잉카 문명의 흔적을 만나다

황인의 '예술가의 한 끼' ⑥
파리서 석경하다 조각 눈뜨는 문신
바지락 먹고 미각 키워
조현영의 클래식, 영화를 만나다 ⑤
영화 '색, 계'와
브람스의 모음곡 'Op.118의 2번'